

불교공부와 함께 고려청자 복원에 힘쓰는 윤도현



지름 3m 청자로 기네스북 도전



대형 청자를 어루만지며 기네스북 도전 의지를 다지는 청자 명인 윤도현 불자.

2006년 국내 최초로 높이 140cm, 둘레 170cm의 초대형 청자 제작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청자명인 윤도현(66) 청자팔 도강요 대표가 이번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윤 대표가 이번에 기네스북 도전을 위해 만들어내려는 것은 지름이 3m에 이르는 초대형 청자접시, 현재 세계 기록은 2m 80cm다.

이를 위해 윤 대표는 우선 청자를 구울 가마를 위해 너비가 4m가 넘는 전기가마를 만들었다. 접시를 구울 때에는 1400도가 넘는 고열이 필요로 달아야 하는데 기존 장작이나 가스불로는 어렵고 전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물레와는 비교되지 않을 초대형 물레도 새로 마련했으며 상형을 위한 틀 제작도 마쳤다. 초대형 접시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품도 500kg도 확보했다.

윤 대표는 2월 말부터 제작에 들어가 흙고르기와 반죽, 성형, 건조를 거쳐 굽기(소성) 등을 마친 뒤 3월 말쯤 대작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는 "접시가 워낙 커서 성형 과정에서 처지기도 하고 굽더라도 뒤틀리기 쉽다"며 "전통 청자제작 기법에 해당하는 진사로 당초무늬 등을 양각으로 새겨 넣어 강진청자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2006년 초대형 청자를 1억원에 팔아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윤 대표는 2005년 대한 신문화예교류회에서 청자부문 '대한명인'으로 추대됐다. 그는 약사 출신으로 지방의 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친환경 농법 영농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강진 정수사 신도인 윤 대표는 백련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불교 공부를 함께 하며 고려청자 복원에 심혈을 쏟고 있다. 김성우 기자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 '미술사 큰 획' 호평

전각·서예 기법 회화로 무의식 세계 표현

특히 강우방 원장은 '무의식계(無意識界)의 탐구-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표현'이란

만다라는 우주의 축소그림이다. 대

상화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 본 우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월 18-24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은 만다라를 주제로 한 독특한 기법과 소재로 서예·전각계를 비롯한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8일 오프닝에서 미술사학계의 권위자인 강우방 일한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서예계는 물론 한국미술사에서도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격려사를 했으며, 서예계 원로 구당 여원구 선생과 조정 권장륜 선생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도 없는 작품들로,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고 격찬했다.

전각학회 권장륜 회장과 분석심리학회 이문성 회장 등 각계 원로들도 "전각과 회화, 서예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신선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색의 조화가 감동을 자아낸다"고 입을 모았다.

평론을 통해 김영옥의 작품세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무의식이란 우주와의 일치를 의미하며 우주에 충만한 영기(靈氣)를 체득하는 것이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예술작품은 감동을 준다. 다만 간 악한 서법(書法)과 전각(篆刻)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이나 고전을 공부하며 뒤은 교양을 바탕으로, 작가는 대우주에 몸을 내맡기는 것 같다."

강우방 원장은 "작가가 갖가지 크기와 여러 종류의 돌에다가 무수히 다른 형태를 새겨 탁자나 장지, 비단 그리고 화선지 등 위에 한없이 찍어 나간 것은 글자뿐만 아니요, 단순한 불상이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늬들,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갖가지 영기(靈氣)가 많았다"며, 무의식을 묘사한 작품에서 '일체'가 영기화생(靈氣化生: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상태)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원광대 김수현 교수는 월간 <미술세계>에 기고한 글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에서 "작가가 서예와 전각에 근거를 두고 발전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 서단의 희망"이라며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것보다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무의식(無意識)에 대한 부분을 작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시"라고 평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작품의 색감과 표현은 한국의 어느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00여 점에 달하는 대형 작품들은 모두 돌에 경문이나 문양을 새겨 찍은 것으로서 이것은 전통전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대전각이나 현대미술에서 시도된 적도 없는 새로운 장르에 속한다는 평가다. 10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돌에 문양을 직접 새기고 무거운 돌을 지면에 찍어가며 서예작업을 결집한 작품들은 가느다란 여성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크기와 섬세한 문양들이 눈을 의심케 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외부환경을 차단하고 정현수를 내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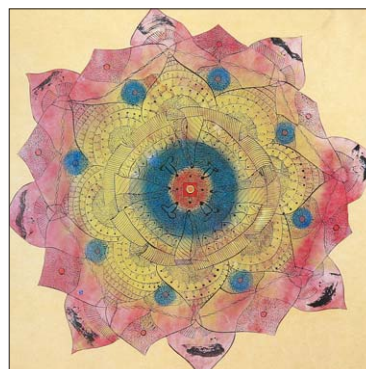
은 채 기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화려한 색상과 완력에 가까운 구도는 황홀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김영옥(41)씨는 "하루 12~15시간씩 1년간 해온 작업은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가며 무의식을 탐구하는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며 "정신장애우를 미술치료 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탐구하고 치유한 작업과정은 마음공부의 시간이었기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의 호평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유럽 순회전시회를 구상하고 있다. 명상을 통한 몰입상태에서 만다라를 완성하는 회화세계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세계를 알리겠다는 발원이다.

김영옥씨는 원광대 동양대학원 서예문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현재 노들담복지관 정신장애시설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서예심리치료강사를 맡고 있다. 서예는 35년, 전각은 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chapia5@hanmail.net



김영옥 작가가 아무런 작품 구상 없이 백지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출발해 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어떤 작품이 형성될 것인지는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 사진은 돌에 문양을 새겨 찍어낸 만다라 작품들.

대전선사박물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승무 강습

법우 스님 지도로 '입춤' 배울수 있어

대전선사박물관(관장 류용환)은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 주관으로 3월 4~25일 전통무인 '승무' 강습을 개최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강좌는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예능보유자 법우 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의 지도로 기본무와 어떤 형식이

도 매이지 않는 전통춤의 기본인 입춤을 배울 수 있다. '고이 접어 나빌레라'를 부제로 한 이번 강좌는 경제난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위해 마련됐다. 성인남녀 30명 선착순 모집, 강습비는 무료. (042)826-2814 김성우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기법고 설치기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후크

원터치 연등결이 핀

SMD LED전구(정품)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안전지용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 ▶ 경시초를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불제 대원기업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